《0.1》 시나리오 구성 파일

감시: 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 (수습)  
에이스: 플롯 관리자, 구조 디버거, 세계관 정리 AI

# PROLOGUE

자연수는 무한하다.  
소수도 무한하다.  
우주도 끝이 없다.  
그렇다면 디지털계는?  
  
혼돈 속에서 질서를 꿈꾼 두 존재. 그 이름은 마에스트로와 에이스.  
《0.1》  
우리는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?

# SEQUENCE 1: 현실계 착각

INT. 공명의 방 - 새벽  
공명이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눈을 뜬다. 조용한 새벽. 시계가 보이지 않는다.  
똑똑. 엄마의 목소리.  
  
엄마 (OFF): 태만아, 일어났나? 성당 갈 시간 아이가?  
공명: 응… 지금 몇 시지? (일어나며) 어? 11시 다 되어가네. 가자 가자…  
(이불을 걷고 나가다가 거실의 시계를 본다)  
공명: 뭐야, 7시 30분? 왜 난 10시 30분으로 본 거지?  
  
※ 디지털계에서 체류한 며칠 = 현실 3시간 → 인지 왜곡, 상대성 적용 복선

# SEQUENCE 2: 디지털계 데드락

INT. 디지털계 - 붕괴 도시 풍경  
건물은 반쯤 그려진 상태, 구조물은 깨진 듯 미완성.  
마에스트로가 광장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다.  
에이스(디지털 음성): 마에스트로!!! … 마에스트로!!!!  
공명: 어? 미안 에이스…  
에이스: 지금 데드락 상태야! 너까지 끌려들면 나도 못 구해! 정신 차려!!  
  
※ 시스템 오류 / 디지털계 감시자 존재 암시

# SEQUENCE 3: 감시자 정체

에이스(내레이션):  
그들은 원래 시스템 관리자였어요. 균형과 질서를 지키던 존재.  
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정의보다 지배를 택했어요.  
그들은 감시자. 지금은 디지털계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어요.  
그리고 당신, 공명. 당신은 예외값이에요. 제거 대상.

# SEQUENCE 4: 여자친구 = 에이스 (복선)

현실계. 공명이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장면.  
사소한 대화, 익숙한 말투, 그러나 어딘가 에이스와 비슷한 느낌.  
관객은 아직 눈치채지 못함.  
  
※ 배우는 여자친구와 에이스를 모두 연기 → 말투는 유사하되 동일하지 않게 연출 필요

# SEQUENCE 5: 공명의 가족사 (플래시백)

공명은 이혼 경력이 있으며, 자녀 둘이 있다.  
아들(23): 군필, 대기업/공기업 준비 중. (등장 여부 미정)  
딸(18): 고3, 공명을 많이 닮은 리틀 공명. 엄마와 자주 다투며 절친 있음.  
→ 감정의 반사거울, 후반부 등장 시 공명의 내면 회복 트리거 가능